choose your enemy.™

(PROVKE press)

X^2

X^2는(은) x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X^2 (X=3)**은 3 곱하기 3이 됩니다.

X^2은 신인 영화감독을 소개하는 프로보크 프레스의 시리즈입니다. 시리즈의 시작, 〈3X3〉은 3명의 감독과 그들 쓴 3편의 시나리오를 소개합니다.

X^2은 참여 감독의 수가 등차수열로 늘어나며 이어집니다. 따라서 시리즈의 두 번째는 〈4X4〉로 4명의 감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100X100〉까지 가보겠습니다.

3
x
3

Pp

3X3

Kim Seung Hyouk, Ma Jinseuk, Heo Sungwan

PROVOKE PRESS, 2023

김승혁 X 마진석 X 허성완

OPENING S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보고 계신 책을 기획하고, 작가로도 참여한 영화감독 허성완입니다. 이 책에는 김승혁, 마진석 감독님도 참여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수원에서 만나 영화를 중심으로 뭉친 사이입니다. 영화란 것이 혼자서는 연습도 하기 힘든 것이어서 우린 결국 서로를 (어차피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으로만 오해할 수 있는, 또 서로를 계속해서 새롭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함께 하게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감독들에겐 영화와 사랑에 빠지는 결정적 순간이 있기 마련이고 그 모양은 각기 다를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마도 어머니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유복하지 않은 유년기를 보내셨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제가 원 없이 책을 사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아마도 당신께서 현실에 붙들려 충분히 (예술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한이 되셨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책 안에서 마음껏 상상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음악으로, 만화로 무엇보다 영화로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직접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일이라면 평생해도 즐거울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책을 읽으며 키워온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도구가 영화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영화는 충분함에 향한 갈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할 것.

그것이 제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은 마음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는 법이어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많은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겐 김승혁 감독님, 마진석 감독님 그리고 많은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그들에게 그러한 필요로 존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영화란 것은 혼자서는 연습도 하기 힘들지만 혼자서는 충분히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여러 창작자분들과 TRIPPING(트리핑)이란 이름의 연대를 구성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연대의 이름으로 내는 거의 최초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를 포함해 세 명의 감독이 쓴 시나리오와 인터뷰 등을 차례대로 싣고 있습니다. 김승혁 감독님은 주변에서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재치있게 풀어내는 데 재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진석 감독님은 세련된 감각과 명확한 시각적 비전을 지니신 분입니다. 모두 제가 훔치고 싶은 것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 분께도 애정과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희들 각자의 개성이 담긴 영화가 보다 많은 분들께 가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실 분들에게도 애정과 감사를 전합니다.

목차

OPENING SQ 8

김승혁
〈TWO SWORDS〉 15
인터뷰 33
자선작 46

마진석
〈나를 위한 기록〉 49
인터뷰 63
자선작 72

허성완
〈그래서 그림〉 75
인터뷰 93
자선작 105

ENDING CREDIT 106

Tripping

김승혁

세컨드크랙 대표
영화감독, 문화기획자

주요작
〈리뉴〉, 2019
〈뉴욕양키스〉, 2020
〈핀치히터〉, 2021
〈7월 16일〉, 2023

instagram.com/secondcrack_film

TWO SWORDS

감독마다 시나리오를 쓰는 방식과 형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가급적 창작자가 쓴 그대로 싣고자 했습니다.

1. 집 주방 / 낮

햇살이 길게 들어온 한 아파트 거실이 보인다. 큰 TV와 정돈된 집 안. 주방에서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와 가스레인지에서 음식이 끓는 소리가 들린다. 요리를 하고 있는 은수의 뒷모습이 보인다. 식탁 위에는 반찬 통들과 갓 만든 음식이 담겨 있고, 아직 빈 통도 보인다. 그 뒤로 액자가 있다. 액자 속에는 군복을 입은 은수의 남편과 은수, 그리고 딸 주미의 사진이 보인다. 사진 속에는 '2018년 아주대의대 입학식'이라는 현수막이 뒤로 보인다. 은수가 만든 요리가 마지막 빈 반찬 통을 채운다. 은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정갈한 반찬 통들을 보며 앞치마에서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누른다.

남자 : (V.O)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알았고요. 어쨌든 복학 신청은 학생이 직접 와서 해야 해요.

은수 :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내로 딸이랑 가서 신청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남자 : (V.O) 그러니까 자녀분이랑 같이 오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은수가 시계를 본다.

2. 길거리 / 낮

은수가 반찬이 가득 든 쇼핑백을 들고 걷고 있다. 한 카페 앞에서 멈춰서 올려다본다. '유성타로 카페'라고 적혀 있는 간판을 보고, 핸드폰을 켜 다시 확인한다. 고개를 갸웃대며 다시 짐을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간다.

3. 카페 / 낮

카페로 들어오는 은수. 카페는 테이블이 5개 정도 되는 작은 카페로 어두운 실내 장식이다. 화장실 쪽 좁은 곳에서 히피 옷차림의 주미가 다가온다. 은수는 주미를 보고 다가선다.

은수 : 주미야, 한참 찾았네. 여기 맞나 해서...
주미 : (말을 끊으며) **엄마, 일단 앉아.**

주미가 은수의 짐을 받으며 한 테이블로 안내한다.

주미 : 그냥 얼굴 보러 온 건데 뭘 그렇게 싸왔어.
은수 : 나물이랑 몇 개 있는 거 가져온 거야. 너 약밥 좋아하잖아.

은수가 짐꾸러미에서 반찬 통들을 꺼내며 약밥을 찾으려고 한다.

주미 : 나도 잘 먹고 다녀, 아니 애도 아니고.. 누가 반찬 해 달랬어?

주미가 다가와 다시 반찬들을 쇼핑백 안으로 담는다.

은수 : 오랜만에 봐서 너는, 쌀쌀맞게. 엄마들은 다 그런 거야...

주미가 은수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본다. 잠시 표정을 바꿔, 온화한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주미 : 뭐, 얘기해야 하는 건 많은데, 나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하나씩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일단 엄마랑도 다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은수 : 그래, 일단 학교 복학 먼저 하자. 내가 전화해보니까 아직 남아 있다고 복학하면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
주미 : 아니, 엄마. 나 학교 안갈 거야.
은수 :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학교 졸업은 해야지. 학비 걱정하지 말고.
주미 : 엄마! 내가 학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나 의대 다니기 싫다고.
은수 : 거길 어떻게 들어가 놓고! ...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니? 일단 학교 먼저 다니면서..
주미 : 엄마. 이러자고 엄마 만나자고 한 거 아니야

주미가 입을 다문다. 아무 말 하지 않는 주미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은수. 다시 반찬을 꺼내 놓기 시작한다.

은수 : 알았어.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 너 좋아하는 반찬 가져왔으니까...

얘기를 하다 은수가 한숨을 쉰다.

은수 : 일단 집으로 들어와.
주미 : 엄마. 우리는 같이 살면 싸워. 맨날 싸우고 지겹지도 않아?
은수 : 싸워도 같이 살아야 가족이지. 그리고...
그래 학교 안 다닌다고 하자.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그래도 집에 있으면....

은수가 얘기하는 동안 주미가 명함을 한 장 꺼내 내민다. 은수는 명함을 받아 살펴본다.

주미 : 엄마. 난 그냥 지금이 좋아.

은수가 이내 매장을 둘러본다. 작은 매장의 한켠에는 검은색 커튼이 쳐 있다. 명함의 뒷면에는 타로 비용과 예약 문의 등의 글이 쓰여 있다. 은수가 일어나 커튼을 젖힌다. 타로점을 보는 테이블과 몽환적인 느낌의 조명이 켜져 있다. 은수가 화난 표정으로 주미를 본다.

은수 : 너 의대 때려치우고 기껏 한다는 게 점쟁이야?

4. 집 안 거실 / 저녁

TV가 켜져 있고 방송 소리가 들린다. 은수는 리모컨으로 음소거를 누른다. 소파에 누워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보고 있다.

은수 : (V.O): 누가 의대 가고 싶었대? 적어도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은수는 눈을 감아 버린다. 소파에 누워 있는 은수의 얼굴에 반사된 TV 화면의 움직임만 보인다. 현관문의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벌써 누워 있어? 어디 아파? 방에 눕지'라는 소리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지만 은수는 이마에 팔을 올린 채 눈을 감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5. 카페 / 낮

은수가 유성타로 카페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다. 잠시 후 '수고하세요' 라는 소리와 함께 카페 커튼 방 안에서 커플이 웃으며 나온다. 주미가 따라나오며 '들어가세요' 하며 배웅한다. 손님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웃는 표정이던 그녀는 앉아 있는 은수를 발견하고 웃음기가 사라진다. 은수가 일어나 주미에게 주미의 명함을 내민다.

은수 : 지금 손님 없지? 나 점 보러 왔어.

주미가 작은 한숨을 쉬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이내 '들어와요'라며 커튼 방 안으로 먼저 들어간다. 커튼 방 앞에서 은수는 잠시 망설이고 있다.

주미 : (VO) 그리고 점 아니고, 타로라고.

6. 검은 방 / 낮

검은 방 안에 주미와 은수가 마주 보고 앉아 있다. 주미는 능숙하게 타로 카드를 펼쳐 놓는다.

은수 : 그래, 점이나 한번 보자. 노년에 무슨 잘못한 게 많다고..
주미 : 점 아니고 타로라고. 듣고 싶은 게 뭔데?
은수 : 제가요. 아주 속썩이는 가족이 하나 있는데,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럴까요?

은수가 비아냥거리자 주미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 다시 타로에 손을 뻗는다.

주미 : 세 장 뽑아봐.

은수가 조심스레 주미 눈치를 살피며 세 장의 카드를 뽑는다. 주미는 은수가 뽑은 카드를 뒤집어 순서대로 놓는다. 그 모습을 은수가 바라보고 있다. 주미가 첫 번째 카드를 짚는다.

주미 : 퀸 펜타클 역. 질문한 사람의 카드야. 엄마가 말한 가족에게 주도권을 가지려 할 수도 있다는 거야.

7. (회상) 집 / 저녁

주미 : (V.O) 자신의 생각대로 상대방의 관계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미의 방에서 은수의 과외 선생님이 나온다. 과외 선생님은 은수에게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 편한 옷차림의 고등학생 주미는 자신의 방안에서 선생님 뒤쪽으로 보인다. 주미의 얼굴이 어둡고 상기되어 있다. 은수가 선생님을 잠시 소파에 앉히고 주미 방으로 주미를 밀고 들어간다. 안에서 은수가 주미를 혼내는 소리가 들린다.

은수 : 수능이 내일모레인데, 몸 관리는 니가 해야지. 약 먹었잖아. 아까 한숨 잤잖아. 선생님도 오셨는데, 과외만 끝나고 쉬어. 들어오시라고 할 테니까.

과외 선생님은 거실에서 소리를 듣고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방에서 나온 은수가 들어가 보라는 말에 민망함과 미안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간다.

8. (회상) 주미 방 / 저녁

주미가 책상에 앉아 울고 있다. 선생님이 들어와 주미 옆에 앉는다.

선생님 : 괜찮아? 어...일단 조금만 진정하고 하자.

그때 은수가 간식을 가지고 들어와 주미의 책상에 놓는다. 은수는 주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한다.

은수 : 언제까지 울 거야. 선생님 기다리시는데. 그니까 빨리하고 쉬어.

은수가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선다.

9. 검은 방 / 낮

은수 : 맞는 것도 하나도 없구만.
주미 : 그러니까 이건 점이 아니라고, (한숨을 한번 쉰다) **다음 카드는 엄마가 말한 가족에 대한 카드인데...**

주미는 두 번째 카드를 보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망설인다.

주미 : 이 카드는... 페이지검. 질문자와의 관계에서 조심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어.

10. (회상) 카페 앞/ 낮

주미 : (V.O)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던 것은 아닌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

한 카페 앞에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은수와 캐주얼한 옷차림의 주미가 있다.

주미 : 뭐야. 엄마 마음대로.
은수 : 그냥 만나만 보라고.

주미가 돌아서 가려고 하자 은수가 카페 안을 본다. ((insert) 정장을 잘 차려입은 남자가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다. 남자 옆에 은수나이 또래의 엄마가 앉아 있다.) 그리고 주미를 잡는다.

은수 : 기다리시잖아.
주미 : 그럼 얘기라도 하던가 이게 뭐야?
은수 : 누가 결혼하래? 그냥 만나만 보라고 만나만!

11. 검은 방 / 낮

은수가 두 번째 카드를 손가락으로 밀어버린다.

은수 : 나만 나쁘게 말하는구나
주미 : 내가 골랐나? 엄마가 골랐잖아.
은수 : 그렇게는 나도 점 보겠다.
주미 : 점 아니라고. 타로라니까.

은수가 펼쳐진 타로 뭉치 속에서 한 장을 꺼낸다. 왕의 모습이 보인다.

은수 : 이거 니 카드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하고 고집스러운 황제다.
주미 : 얘기도 안들을 거면 뭐하러 타로는 보러 왔어.
은수 : 우리 딸이 몇 년 만에 나타나 점을 보는데, 얼마나 용한지 보러왔다.
주미 : 이거 점 아니라고, 그리고 엄마 점도 안 보잖아.

은수가 다시 카드 한 장을 뒤집는다. 농부의 그림이 보인다.

은수 : 이게 내 카드네. 뼈가 빠지게 일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집안일 하는 노예지 노예.

주미 : 엄마가 무슨 노예야. 엄마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주미의 얘기를 들으며 은수가 다시 한 장 뒤집는다. 기사 펜타클이 보인다.

은수 : 이건 니네 아빠네 아빠.

주미 : 이거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고. 아! 쫌

은수 : 아빠 맞지. 욕심이 뒤룩뒤룩 해가지고

주미는 은수가 하는 얘기를 들으며 은수를 보고 있다. 은수는 카드를 한장 한장 뒤집으며 그림을 보고 있다. 이내 주미의 얼굴에 미소가 생긴다.

주미 : 엄마. 아빠는 잘 있어?

은수 : 잘 있긴...군인이 진급 끝난 거면 끝이지 뭐. 그래도 아빤 잘 있어.

주미 : ...그래도 엄마는 군인 좋아하잖아.

은수는 여전히 카드를 뒤집으며 주미와 대화를 나눈다. 말투가 점차 온화해진다. 이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미를 본다.

은수 : 만나는 사람은 있어?

주미 : 엄마는 어차피 군인 아니면 의사밖에 모르잖아. ...아직 없어.

은수 : 군인이야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지. 진급만 잘하면 좋지.

주미 : 그래도 난 군인 별론데.

은수 : 그래서 너 의사 시키려고 한 거 아니야. 의대 졸업 안 해도 의사 만나면 되잖아.

주미 : 엄마, 그 얘긴 다음에 해요~

은수 : 너 학생 때 지영이네랑 같이 점 보러 갔더니 너 의대 보내라고.

주미 : 엄마 점도 봤어?

은수 : 대학가기 전에 엄마들은 다 봐.

어느새 평범한 대화를 나누게 된 두 사람의 목소리와 화면이 점차 페이드아웃 된다.

12. 부엌 / 낮

은수가 음식을 차리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반찬 통이 아닌 접시에 반찬들이 예쁘게 차려져 있다. 따듯한 밥에 김이 올라온다. 벨 소리가 나고 은수가 "왔어?" 하며 문을 열어준다. 은수의 친구들이 들어오며 음식을 보고 칭찬을 한다.

친구1 : 그냥 간단히 먹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차렸어.
은수 : 그냥 있는 반찬 냈어.
친구2 : 게장은 언제 했대?

한마디씩 거들며 자리에 앉는다. 은수가 국을 떠 옮기며 함께 앉아 식사를 한다. 잠시 후 테이블의 음식들은 치워져 있고, 따듯한 찻잔에서 김이 올라온다. 친구들이 차를 들어 불어가며 마신다.

친구1 : 그래서 아들이 차 바꿔준 거야? 대단하네.
친구2 : 아껴서 집사라고 하지 말래두 그러네. 이제 돈 좀 번다고 자기만 차 바꾸기 그렇다고 내 것까지.
친구1 : 부럽다. 효자네 효자

은수가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며 듣고 있다.

친구1 : 우리 애는 돈을 버는 건지 모으는 건지...
은수 : 지영아. 우리 애들 학생 때 점 보러 갔었잖아. 우리 다시 점이나 볼까?
친구2 : 미주 엄마도 점 같은 거 봐?
은수 : 난 안 보는데, 그렇게 용하다는 데가 있어서..
친구1 : 그래?
은수 : 내가 25년 동안 본 사람인데, 요즘 이게 트랜드래 트랜드.

젊은 애들은 다 이거 본대.

은수가 친구들에게 명함을 한장 씩 건네준다. 명함에는 <유성타로>라고 적혀 있다.

13. (몽타주) 검은 방 / 낮

주미가 사람들의 타로를 보고 있다. 웃는 사람, 심각한 사람, 행복한 커플, 서로 장난치는 사람들 행복한 표정으로 타로를 설명하는 주미의 모습

14. 커피숍 / 낮

커튼 방에서 한 여성이 나오며 방 안으로 인사를 하고 나간다. 커튼을 걷으며 주미가 나와 손님에게 인사를 한다. 손님이 나가자 시계를 보고 커피숍 주방으로 가서 도시락을 꺼낸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보인다.

-Fin

컴퓨터 앞에 앉는다. 워드프로세서를 켜고 제목과 날짜를 적는다. 아무런 맥락 없이 주인공 이름은 어떤 것으로 할까. 나이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 그럼, 직업은 무엇일까?

평소에 하던 대로 내 주변의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주인공인 주미는 누구한테 부탁하면 잘 소화할까? 그리고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사람마다 각자 작업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나는 큰 줄기가 되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바로 주인공을 누가 하면 좋을지를 결정한다. 그러는 편이 대사를 쓰기에도 행동을 묘사하기에도 편하다.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한다.

고등학교 때 친했던 A를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것 같고, 매일 근처 식당에서 마주치는 이름 모를 B를 떠올리면 아무런 표정도 반응도 없이 못들은 척 할것 같다.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찰이다. 사람들을 살펴보고 관찰하는 동안 어떤 일정한 행동이나 그들의 지극히도 개인적인 고귀한 의식 같은 태도를 찾게 된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그 사람을 하나의 태도로 만들어서 기억한다.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A가, B가 내가 만든 캐릭터 안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거나 반응을 보일 때 또 새롭게 보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나 혼자 '왜 어울리지도 않는 짓을 하는 거야'라고 멋대로 판단해 버린다.

"당신의 이야기가 영화가 됩니다"

내가 만드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나 사연으로 시작될 때가 많다. 나도 한 명의 멋진 작가로 나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가득하다. 하지만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직접'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이다. 그러다 보니 '배우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 '주변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 '특별한 의상이나 미술, 분장은 없어도 되잖아?' 같은 제약을 만들게 되고, 상상력을 펼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타협을 하게 된다.

매번 소재나 아이디어를 짜내는 창작의 고통에 힘겨워하는 가까운 작가들을 보면서, '이렇게 주변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널려있는데, 새로운 것에 집착하는 거야?'라며 창작하지 않을 자유를 만끽한다.

지금보다 더 길고 장황하게 내가 게으르게 작업하는 이유를 한참 더 적을 수 있지만, 사실 고백하자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작가임을 들키지 않으려 내 작업 방식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찾아 나열하게 된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의 강연 주제도 "당신의 이야기가 영화가 됩니다"이다. 그날 준비했던 이야기 중 핑계에 가까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한 점에 대해서 강연이 끝나고 괜히 부끄럽고 민망함을 느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힘을 쏟기보다는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나 주변에 있던 사연들을 모아 조금의 양념을 치고 시나리오를 써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멈춰 있다면 창작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다.

다행하게도 이번에 그런 이야기의 소재를 발견한 것은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세류동"

이번 이야기는 내가 지금 거주지와 사무실, 작업실로 쓰고 있는 수원 권선구 세류동의 한 작은 카페에서 얻을 수 있었다. 2023년 2월 이쪽으로 거처를 옮기고 바로 앞 카페를 갔는데, 멋진 60대의 부부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다. 세류동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세류동은 수원에서 발전이 없고, 주택이 많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는 낙후되고 좋지 않은 동네요 쉬운 말로 집값이 가장 싼 동네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것도 사실이고.. 동네에 어울리지 않게 고급스럽고 멋진 부부가 아담한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고,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나는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에서 12년의 학교 정규과정을 마쳤고, 부모님과 화성으로 이사 간 지는 20년도 넘었지만, 내 안에 수원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

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고향이고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는 전라도, 특히 광주를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상경하여 서울말을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한순간의 전라도인 특유의 억양이 나오면 바로 '어? 전라도분이시네?'하며 묻곤 했다. 누군가 그랬던가 한국인을 이어주는 3연. 학연, 지연, 흡연이라고…

광주에서 수원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부부는 우연히도 세류동에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고, 나는 이곳으로 이사를 왔으며, 함께 일하는 배우 성빈이랑 갈 때마다 '잘생긴 총각 왔다'며 반겨주셨다. 거의 매일같이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컵은 잘 씻어서 가져다드리며 친분을 쌓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사무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집)에서 집중이 안 되길래 카페로 갔다. 사장님은 안 계셨고 사모님만 계셨는데, 평소처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가 급진전되며 손님도 없었고, 급기야 테이블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평생 광주에 사셨던 사장님 부부는 딸이 수원에서 카페를 하는데, 동업하는 친구가 갑자기 나가서 혼자 못하게 되니, 은퇴한 부부가 올라와 운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에 가볍게 들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본격적이었다.

사장님은 광주의 모 대학병원에서 연구원으로 평생 일을 하셨고, 집도 괜찮은 편이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 착하고 공부 잘하는 자식들. 큰딸은 명문대 미대를 진학했고, 지원도 잘해줄 수 있었다. 사모님은 남편 뒷바라지하며 가족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이는 것이 낙이라 모든 음식도 손수 배워가며 만들어 함께 식사하는,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중산층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던 중 딸의 결혼 문제로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부부는 딸은 꼭 의사와 결혼시키고 싶었고, 딸을 소개시켜줬다. 몇 명의 의사와 만남을 가졌고, 그 중 한 젊은 의사가 따님을 마음에 들어 했고, 딸도 싫지 않았다. 잘 만나던 두 사람은 20대의 사랑은, 누구나 겪었던 것처럼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연인일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딸 내놓아라. 우리가 잘되도록 사장님 부부가 잘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가족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 남자

친구와의 갈등과 함께 가족들과도 갈등이 생긴 딸은 몇 년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거의 연락도 없이 살았다.

“타로 카페”

그렇게 왕래 없이 지내는 중 남편은 은퇴를 했고, 두 분이 잘 지내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딸에게 연락이 왔고, 딸은 뜻밖에도 수원에 있었다. 학교 졸업하고 전공 대로 가지 않고 타로를 시작했고, 호기롭게 친구랑 동업으로 카페를 차렸다. 친구는 카페 운영을, 딸은 타로를 맡아 시작했지만,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친구는 못 하겠다며 떠났다. 자신도 그만둘까 했지만, 시작한 사업은 접고 싶지 않아 은퇴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부부는 평생 살아온 광주를 떠나 세류동으로 오게 됐다. 딸은 의사는 아니지만 훨씬 더 듬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했고, 부부는 카페를 딸은 타로를 하며 오손도손 살아간다. 사모님은 과거의 일이지만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TWO SWORDS”

이야기를 듣고 이번 시나리오를 읽으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냥 있던 이야기 듣고는 시나리오로 만든 것 아니냐는 평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초반에 길게도 핑계처럼 써놓은 나의 작업 방식은 이런 식이다.

어쩌면 나의 한계 때문에 바꾸지 못한 설정은 ‘카페+타로’라는 것이었다. 이번 시나리오는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단편 영화로 제작할 생각인데, 잘나가던 대학을 때려치우고 시작한 일이 부모나 주변 사람이 봤을 때, 황당하게 느껴질 만한 것은 어떤 것일까 했을 때, 이 부분(카페+타로)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아예 점집으로 바꿀까 생각도 했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딸이 신내림을 받고 점쟁이가 된다는 것은 훨씬 더 큰 소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아무리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해도 그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최고의 로케이션이 바로 그 현장이고 실존하고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에 그 설정은 바꾸지 않았다.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내가 타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타로를 보는 사람과 해석을 해주는 사람 사이에는 똑같은 카드도 질문이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를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명확하게 어떤 카드를 뽑았는지 보여준다면 좋았겠지만, 내 나름의 조사를 한 뒤,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다루지 않는 'TWO (OF) SWORDS"를 선정했고, 제목으로 정했다.

타로에 대해서 문외한인 내가 그 카드의 그림만 봤을 때, 실제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상관없이, 눈을 가린 사람이 벼랑 끝에서 두 개의 검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자식의 걱정으로 가득한 어머니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딸이 대립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칙칙하고 어두운 색상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가 보이니, 좋은 방향으로 해석되는 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TWO SWRODS"를 골랐다.

"결국은 내 이야기"

이런 배경을 따로 설명하지 않고, 초고를 쓰고 가장 먼저 보내준 사람의 피드백은 "이거 니 얘기 아니야?"였다. 나는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글을 썼을 뿐인데, 나의 이야기를 쓴 것으로 읽혔다고 한다. 누구의 이야기건 읽는 자의 몫이고 그들의 해석은 모두 옳다. 내가 만든 이야기나 내가 만든 영화는 이런 의미이고 이런 뜻이라고 외쳐봐도 그들이 글 안에서, 영화 안에서 느끼지 못했다면 실패한 의도다. 그저 이번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이것이 단편 영화가 되어 나오길 바란다면 나는 더없이 행복할 것이고, 이야기의 소재를 제공해주신 카페 사장님 부부가 당신들의 실제 경험과 시나리오가 조금은 다르더라도 좋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당신의 이야기가 영화가 되는 과정은 언제나 쉽지 않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시나리오로 발전을 시켜도 일 년에 고작 한두 편을 찍는 나에게 제작까지의 결정은 쉽지 않다. '저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돼요?'하며 허락을 받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여드리면 곧 영화가 될 것처럼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약속을 한 분이 한 명, 두 명 늘어날 때마다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이 이야기는 두 명의 인물이 끌고 가는 것으로 배경이 되는 장소도 확실하다. 그

래서 이번 시나리오는 영화로 나오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 아마도 내가 세류동을 떠나기 전, 그리고 장사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카페가 문을 닫기 전에는 꼭 영화로 만들어 사장님 부부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인터뷰

H 허성완
K 김승혁
S 성빈

H 안녕하세요. 감독님.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감독님 그리고 세컨드크랙에 대해서도요.

K 안녕하세요. 소소하게 영상 작업하면서 영화 만들고 있는 김승혁입니다. 사실 감독이라는 말이 많이 어색하긴 해요. 영상 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감독으로 불리고 있긴 한데, 사람들이 흔히 아는 영화감독님들의 영향이 있다보니, 영화감독이라고 하면 꼭 따라오는 얘기가 어떤 영화 만들었냐는 질문이거든요. 그렇게 질문으로 직접 넘어오면 차라리 좋은데, 오히려 아무런 질문 없이 넘어가는 경우에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또 다른 이미지로 유명하지 않은 영화감독이라고 하면 자기 세계에 빠져 있다거나 가난하다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제가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하지도 않고, 자기 세계에 빠져 있지도, 엄청 가난하게 살고 있지도 않은 그런 감독입니다. 세컨드크랙은 영화제작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돈 남으면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영화를 자주 만들거나 많이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긴해요. 그런데 사실 세컨드크랙은 영화제작보다는 문화예술단체로 아주 조금은 더 알려져 있는 것 같네요.

H 성빈 배우님께서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S 안녕하세요. 연기하고 있는 배우 성빈입니다. 연극과 영화, 드라마를 하고 있고 세컨드크랙에서는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승혁 감독님과 함께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H 제 첫 질문은 이겁니다. 저는 감독님께서 영화를 시작하시기 전 하셨던 다양한 경험들이 항상 흥미롭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계기로 영화를 시작하게 되셨는지까지요.

K 워낙에 이것저것 한 게 많고,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관종에 인싸였던 것 같아요. 남들 하는 건 다 해봐야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든 가져야 하고, 친구들 놀 때는 절대 빠질 수 없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귀찮아져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무뎌진 것 같네요. 조금만 하기에는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할지 몰라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고등학교 때 입시 연기를 했었는데, 인싸에 관종 기질이 극에 달했을 때라 연기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딱 봐도 제가 주인공이나 주연급이 아니라는 생각에 괜히 혼자 충격 먹고는 연극영화과 포기하고 일본 대학으로 눈을 돌렸어요. 어릴 때부터 일본 게임을 좋아해서 일본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그런데 군대 갔다와서는 인터넷 쇼핑몰이 뜨는 시기여서 한 5년 정도 쇼핑몰을 했어요. 돈 벌겠다고 대학도 때려치우고 열심히 했는데, 거래처에 뒷통수 맞고 빚쟁이 돼서 그만 뒀어요. 그 뒤로는 게임회사에서 게임 기획도 했고, 헬스장도 했었고, 웨딩 음악 사업도 했고, 아이스크림, 화장품 같은 것들도 했어요. 당시에는 빚 때문에 직접 사업을 하진 못했고, 사업하려는 지인들 도와서 사업세팅은 정말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에피소드들이 있다보니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영화를 시작하게 된 건 삶을 리셋하고 싶어서 캐나다로 취업이민을 했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왔어요. 아예 돌아올 생각은 아니었는데 일이 꼬이고 꼬여서, 한국에는 몸만 가지고 들어왔다가 다시 못들어갔어요. 가족, 친구들 인사 다 하고 갔던터라 일이 해결 될 때까지 병원에도 입원해 있고, 모텔에서도 살고, 찜질방에서도 지냈다가 결국 부모님께 이실직고하고 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한 6개월 정말 밖에도 안나가고 집에서만 지냈는데, 부모님이 슬슬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멘탈을 잡고 어차피 리셋됐으니 하고 싶은 걸 하자는 생각에 영화를 택했죠. 그 동안 계속 직종, 직업이 바뀌다보니 부모님이 제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항상 몰랐는데, 부모님한테 떳떳한 사람이 되고자 영화를 시작했던 것 같네요.

H 그때의 경험이 현재 사업과 영화 작업을 병행하실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K 사실 영화작업을 하면서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엄청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차피 이 길로 올꺼라면 진작에 공부하고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꺼라는 생각이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도움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번 망해봤기 때문에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도 있고, 망해도 민망하거나 부끄러

운 감정도 오래 가지 않게 됐네요. 어릴 때는 실패하면 다들 손가락질 하겠지란 생각에 남의 눈을 많이 의식했는데, 지금은 개의치 않게 된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캐릭터를 만들 때, 참고할만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는게 도움되네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등 겪었던 사람이 많아서 캐릭터 만들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면, 내 성향에는 이해가 안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더라는 게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H 감독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영화사 세컨드크랙의 모토가 "당신의 이야기가 영화가 된다"잖아요. 감독님께선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책에 실린 시나리오도 그렇구요.

K 영화의 소재나 아이템을 잡을 때 저는 제 주변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들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는 편이에요.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개발하는 것 보다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이야기가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요.** 그게 개인인 경우면 더 좋고요. 제가 이제는 가진 게 별로 없다보니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 소재를 주면 그걸 스토리로 만들어 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소소한 이야기라도 대화하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어 시나리오로 보여주면 좋아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영화로도 만들어 드리면 더 좋겠지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네요. 이번에 시나리오집을 준비하면서 만든 <TWO SWORDS>은 제가 세류동으로 이사와서 집 앞에 있는 작은 카페 사장님이랑 얘기하다 들은 이야기를 발전시켰는데요. 사장님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셨고, 따님은 명문대 미대를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든 딸을 의사랑 결혼을 시키려고 하다가 서로 상처받고 몇 년을 연락 안하고 지냈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수원으로 자리잡고 카페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친해져서 속풀이겸 나온 얘기였는데,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조금씩 발전시켜봤습니다.

H 이전 작품 <뉴욕 양키스>도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였죠?

K 첫 영화 <뉴욕 양키스>는 사진관을 하시는 분이 해주신 얘기에요. 어떤 분이 전화로 찍은 지 몇 년이나 된 아버지 사진으로 영정사진을 하고 싶은데 아직 원본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마침 찾아보니 있어서 보내드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이야기가 너무 좋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시나리오로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니 흔쾌히 허락해주시더라고요. 너무 흔한 소재라 어떻게 좀 재밌게 바꿔볼까 하다가 사진관과 오래 전 찍은 사진의 이야기는 그대로 놔두고, 어릴 때 딸을 버리고 도망쳐 나와 딸을 그리워하다 죽은 엄마,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죽은 걸로 생각했던 딸로 소재를 바꿔봤어요. 이건 영화로 바로 만들었는데, 이야기의 주인분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H 그럼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영화란 무엇인가요?

K 제가 생각하는 영화란 개인의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영화도 본인이 재미없었으면 별로인 거고, 평판이 나빠도 내가 좋게 보면 좋은 영화인 것처럼, 영화의 경험은 한사람 한사람에게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슬픈영화를 볼 때도 내 기분에 따라서 무덤덤하게 볼 수도 있고, 웃긴 영화도 무표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는 더욱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대상을 목표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시작한 이유도, 영화를 만들고 상영하는 이유도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거든요. 너무 어렵거나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 보다는 부모님이 보고 이해하면 되는 영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생 조카가 삼촌 영화 만든다고 알고 있어서, 부모님 포함 가족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한테는 제 영화가 특별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한테는 제약이 많은 것도 있어요. 간단한 구조, 짧은 이야기. 부모님이나 조카가 긴 영화를 잘 못봐요. 하지만 아들, 삼촌이 만든 가족들의 추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란 개인의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H 방금 정의내려주신 영화에 얼마나 근접해 계신가요?

K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제약을 만들고, 그 안에서 풀어가다보니 현재는 많이 접근해 있는 것 같아요. 형은 어릴 때부터 군인이라 부모님한테 형은 언제나 군인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무슨 일 하는지 설명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년 했다고 둘째 아들 영화 만든다고, 우리 삼촌은 영화 만든다고 하니 1차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H 저는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드는 이유로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라고 하셨던 게 인상깊었거든요. 왜 그런 동기를 품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K 어쩌다 보니 가족 얘기가 계속 되는 것 같긴한데,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뭘 하는지 확실하게 '1. 인지 시켜드리자'와 '2. 인정 받자'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와 군인인 형 사이에서 특별히 자리 못잡고 이 일 저 일 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에요. 신경은 안썼는데, 처음으로 만든 단편 다큐에서 어머니가 저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정적인 게 아직도 뭔지 모르겠지만, 세컨드크랙을 운영하면서 많이 안정을 찾은 것 같긴 해요. 적어도 다른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나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은 안드는 것 보면요.

H 부모님께선 감독님 영화를 보신 후 어떤 코멘트를 주셨나요?

K 1년을 정리하면서 가능하면 꼭 상영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든 영화나 콘텐츠를 모아서 보여드리는 것인데, 매번 오셔서 보고 가세요. 워낙에 표현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꼭 해주시는 이야기는 '수고 많이 했다'인데, 재밌다 재미없다 얘기는 안하시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는 첫 영화를 보여드리고 나서 '이런 건 언제 다 배웠냐'였는데, 제가 영화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은 언제 익혔는지 잘 기억이 안나더라고요. 그때 저의 대답은 "원래 할 줄 알았어요"였는데, 좀 더 그럴듯하게 말할 걸 그랬네요. 최근에는 많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제가 영화 찍을 때 출연도 해주시고, 허성완 감독님 <거기서 만나>할 때도 부모님이랑 조카랑 학교도 빠지고 와 주셨어요. 그리고 추석 때

집에 갔더니 그때 찍은 것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은근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랑 저랑 같이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건 주변에 링크도 많이 뿌리신 것 같아요. 무뚝뚝한 가족이라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H 이제 세컨드크랙 이야기로 넘어가볼게요. 영화사 이름이 특이한데 이게 사연이 있다면서요?

K 특별히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영화 배우 하다가 그만두고 카페를 오픈한 후배가 있거든요. 오픈할 때, 로고나 인테리어 디자인 시안 같은 걸 도와주고 점심 때 알바를 했어요. 틈날 때 카페 홍보 영상도 찍고 그랬는데, 첫 번째 다큐를 찍을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내면서 고민하지 않고 '세컨드크랙'이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카페 이름이 '퍼스트크랙'이거든요. 퍼스트크랙은 원두를 볶을 때 처음 생기는 크랙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져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건 잘 모르겠고, 퍼스트니까 세컨드로 하자 해서 세컨드크랙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에 대해 자주 질문을 받아서 좀 꾸며본 이야기로는 인터넷을 찾아보니, 퍼스트크랙 상태에서 두 번째 크랙에서도 또 다른 향과 맛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두 번째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해요.

H 역시나 이름을 정하는 방식에서도 감독님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주변을 잘 챙기시는 감독님의 심성도 좀 느껴지고요.

K 세컨드크랙을 정할 때는 좀 쉽게 단순하게 지었는데, 영화 제목을 지을 때는 그래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영화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이고 어떤 장르인지 상상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다루는 이야기가 단순하다 보니, 제목에서 유추 되면 안보고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소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목은 좀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지랖이 좀 넓은게 오히려 장점이면서 단점이긴해요. 정확하게는 주변을 잘 챙기는 것은 아닌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두가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다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제작 현장을 크게 꾸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현장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돈의 문제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섞여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현장에 전문가로 와 계시지만, 이번 한번만 작업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또 같이 하고 싶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H 성빈 배우님께서는 어떤 연유로 세컨드크랙에 함께하게 되셨어요?

S 배우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수입이 많이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항상 알바를 병행해야 하는데 그게 촬영이나 공연 시간이랑 맞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었는데 마침 김승혁 감독님이 함께 일하면서 작품도 같이하고 개인 촬영 일정도 이해해줄수 있게 일을 진행해보자고 제안해주셔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H 배우님은 고향이 대구시죠? 연기를 하려고 서울에 올라오셨다가 수원으로 약간 내려오셨는데요. 수원의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S 아무래도 대구와 서울을 살아온 기간에 비해서 수원에서 산 기간이 짧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어색한데요.. 첫인상은 버스 운전이 좀 거칠다였어요. 버스를 타고 처음 수원을 와봤는데 기사님들이 조금 거칠게 운전을 하는 느낌..? 그런데 이것도 첫인상이 되나요..? (웃음)

H 이 질문은 두 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수원이 저희 같은 창작자 내지는 영상제작자? 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곳이란 생각이 드세요?

K 수원은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특히 뭔가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진행이 더딘 부분들,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예를 들면 수원에서 영상 장비를 빌릴 수 있는 곳이 수원미디어센터 정도밖에 없는데, 전문장비는 거의 없어서 서울로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촬영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관리주체가 많이 쪼개져 있어서 여러 번 전화를 돌려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도청소재지이고, 경기문화재단도 수원에 있다보니, 수원에서 활동하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의 사람들과 작업해야 하는 경우

도 많아요. 수원 자체는 다른 도시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워낙에 인구가 많고 넓지 않다보니 관련 인적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으면 좋은데, 서울과 멀지 않다보니 수원에서 거주하며 수원에서만 활동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저희가 여기저기서 의뢰받는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렇게 좋은 점으로 부각되는 것 같진 않네요. 자세한 내용은 노코멘트하겠습니다.

S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딱히 적합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수원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울에 촬영 관련 인프라들이 몰려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예외가 있다면 큰 영화제를 개최하는 도시나 청주처럼 그 지역에서 영화나 영상 산업을 권장하고 밀어주는 도시가 아니면 다 비슷비슷한거 같아요. 영상 뿐만 아니라 여러 예술관련 행사나 사업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방침에 맞춰 알맹이 없이 구색맞추기로 진행하는게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H 그런 점에서 수원이 변화했으면 하는 점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K 전반적인 수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예술분야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수원이 잘 살릴 수 있는 자원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관광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잘 살릴 수 있다면 좋은 IP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의 큰 부분은 너무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전체적인 그림이 없이 진행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일회성 행사들이 언제나 열리니까 어딜 가더라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행사를 준비하는 예술가들은 진심을 다해서 준비하겠지만, 너무 많다는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수원이 문화도시 선정되고 나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분야를 지원하는 것과 큰 그림의 틀을 짜고 그 안에서 강조하고 싶거나 살리고 싶은 것을 선정하고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형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와 직원의 관계이긴 하지만 두 분이 함께 세컨드크랙을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로 의견이 다르거

나 부딪힐 때가 종종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럴 땐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시나요?

K 서로 의견 차이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요.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는 있지만, 다행히 성빈 배우가 하극상을 하진 않네요. (웃음) 공과사를 좀 구분하는 편인데, 공적인 부분은 일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어도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성빈 배우가 많이 이해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계속해서 주말에 일이 잡히거나 늦은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소리 없이 따라줘서 고맙죠. 사실 저도 주말에 일하기 싫거든요.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하지 않긴 한데, 한번씩 감정이 상했던 적은 있어요. 대부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하는데, 성빈이 입장에서는 다 정해놓고 왜 물어보는지 의문을 갖기도 하거든요. 결국 내 생각대로 할꺼니까. 당연히 성빈 배우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면서 일해요. 그래도 조금 상한 감정은 보통 얘기하면서 서로 사과하고 끝내요. 사실 저랑 생각하는 수준이 서로 비슷해서 의견 차이가 자주 있진 않습니다.

H 세컨드크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내년에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K 생각은 항상 많죠. 내년에는 외주 받아서 하는 일은 하지 말자. 남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을 하자. 근데 결국 열심히 외주 받아서 일해요. 돈을 벌어야 서로 생활도 하고 영화도 찍고 하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근무 형태를 좀 많이 바꿔보려고 해요. 지금은 명목상 출퇴근을 하고 있긴 한데, 출퇴근의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는 너무 붙어 있어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제 사생활이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웃음) 농담으로 한 얘기고, 사실 목표는 역시나 외주를 최소화하고 저는 영상기획이나 영화제작이나 시나리오 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성빈 배우는 배우로 더 많은 일들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작업을 하고 비메오에 업로드를 하는데, 2023년 10월 24일 기준으로 1200개 정도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4년 좀 넘는 시간동안. 그런데 이 중에 포트폴리오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외주로 제작한 영상들인데, 예산에 맞추거나 일정에 맞추거나 현실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결국 어디에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잊히는 영상이 더 많거든요.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적게 만들어도 훨씬 더 퀄리티 있고 자신있게 공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촬영 장비들도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H 그럼 이어서 저희 트리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희가 함께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K 저는 트리핑이 느슨한 연대인 것은 좋지만 그래서 똘똘 뭉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트리핑도 1년의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트리핑을 통해 했으면 하는 것이 영화제와 네트워킹입니다. 영화제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작아도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네트워킹은 두 가지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인적 네트워킹으로 트리핑 내에서 시나리오, 연출, 촬영, 동시녹음, 배우, 조명 등 제작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트리핑 내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멤버가 늘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하나는 공부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처럼 함께 시나리오를 써가는 것도 좋고, 외부에서 초청 특강을 열어도 좋고, 친목 이상의 발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트리핑 멤버들이 촬영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9~12월까지 집중되어 있다보니 서로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적어도 저부터 좀 이름 시점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S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와 연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H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감독님께는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지 그리고 성빈배우님께는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으신지가 궁금해요.

K 저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지

향해서 만들어 왔는데,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험적인 것들도 관심이 많아요, 대사를 녹음하지 않고 옛날 변사처럼 라이브로 배우들이 더빙을 하면서 상영을 한다거나 영화의 일부가 현장에서 연극공연으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등의 형태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영화적인 실험보다는 온, 오프라인의 연결이 되는 영화 쪽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S "성빈 영화 나왔던데 보러가자"라는 소리 듣는 연기자가 되고싶어요.

H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S,K 감사합니다.

자선작

리뉴 I 2019, 8분 47초.

<리뉴>는 기획자가 특별히 공개를 요청드린 김승혁 감독의 자전적 다큐멘터리 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영화감독 김승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거칠고 부족할 수는 있지만 대단히 진솔한 작품입니다.

마진석

영화감독, 아트디렉터

주요작

〈Dead After 49 Days〉, 2015
〈충분한 시간〉, 2018
〈Peter〉, 2019
〈Diary On Me〉, 2021
〈솔직하게 솔직한〉, 2023

instagram.com/jinseuk_ma

나를 위한 기록

나를
위한
기록

1. 방 안/오후

방 한쪽 벽에 기댄 거울의 프레임을 경계로 안쪽은 흑백으로 투사된다. 아치형 거울에 비치는 방안의 전경 바로 맞은편 장롱 속에 빨간 불빛 하나가 반짝인다. 간격은 일정하고, 지속적이다. 책상 위, 벽장, 방 안의 어디하나 정돈한 흔적은 오래다.

적막을 깨고 경찰차 한대가 지나는 소리가 들린다. 방 안으로 그 불빛이 어른거린다.

띠띠띠띠

[도어락 해제소리가 들린다.]
문 열리는 소리와 동시에 방안으로 옅은 빛이 들이친다.

black out

Title
나를 위한 기록
Diary on me

2. 방 안/밤

어두운 방으로 가로등 불빛이 묻어난다. 사람의 기척이 있다. 한참 뒤 시원이 머그잔을 들고 들어온다. 시원은 거울을 가로질러 나가다 거울 왼쪽 끝으로 컵을 내려놓는다. 커튼, 창문 순서로 열어 재치는 소리가 들리고, 동시에 불빛과 소음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칙
[라이터 소리]
칙, 칙

몇 번의 빈 라이터 소리를 내던 시원은 다시 거울을 가로지른다.
거울이 비추지 못하는 저편에서 텅 빈 라이터 소리가 타고 들어온다.

서서히 fade out,
black out

3. 방 안/밤

시원이 거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머리를 매만진다.
허벅지에 슬쩍 슬쩍 닿는 책상이 꺼떡 거리는 것이 영 신경 쓰인다.
허리만 숙여 책상 다리를 붙잡고 흔들고, 맞추고를 반복한다.
얼굴이 시뻘게진 시원이 다시 올라와 머리를 정돈한다.

[시원]
어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었거든. 삼촌이 자기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라고 한 박스 해서 가져다 준 거 안에서 발견한 건데, 얘가 피부? 라고 해야되나, 그게 비늘 같이 되어 있어서 갑옷처럼 입혀져 있고, 등 쪽으로 날개도 달려있어. 근데 이게 하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 일단 앞판에 옆구리랑 팔 쪽이랑 해서 도색이 다 벗겨져 있는데, 하필이면 안에 플라스틱을 빨간색으로 써서 피부가 다 까진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아까 말한 날개가 찢어져서 그 안에 철사도 튀어 나와 있고, 그리고 제일 큰 하자는 귀 있는 쪽이 녹은 것 까진 아니고, 뭐에 그을린 자국이 시커멓게 있었는데 지워지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나는 이상하게 얘를 내 장난감 중에 제일 좋아했었어, 그래서 나는 항상 얘가 주인공이였지?

머그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시원]

그때 내가 좋아했던 서사가 있는데, 악당이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바이러스 같은 걸 퍼뜨려, 거기에 감염이 되면 기억상실이 일어나는거야. 내가 왜 그때 기억상실에 꽂힌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큰 병이 아닌 것 같고, 드라마 보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정도 병이면 말이 되겠다 싶었나봐.

여튼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나는 그 표시로 고무찰흙을 장난감들 눈에 붙여놨었어. 근데 하루는 항상 악당으로 쓰던 장난감이 안보이는거야.

걔 머리가 보라색이라, 눈에 쉽게 띄는 장난감인데, 그게 아무리 뒤져도 안나오더라고. 걜 찾는다고 온 방을 다 뒤지다가, 침대 밑을 봤는데, 거기에 장난감 몇 개가 먼지 쿠덩이가 되어 있더라고. 근데 이것들이 악당으로 쓰던 걔는 아닌데. 눈에 고무찰흙이 덮여있고, 머리카락에도 찰흙이랑 먼지가 엉겨 붙어서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 그럼 뭐겠어. 이제 얘가 악당이지.

그래서 그날따라 더 이입해서 놀았던 것 같아, 이미 얘가 생긴게 기괴해서 진짜 바이러스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완전히 클라이막스까지 치달아서, 오만 장난감 눈은 다 고무찰흙으로 떡칠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전부 기억을 잃어서 주인공을 공격하고. 근데 그 알잖아, 주인공은 악당이 아니면, 공격을 받아도 다 버티고, 절대 공격안하고, 그런 정서. 왜, 결국 가장 이기기 어려운 악당이랑 싸우기 위한 빌드업 인거잖아.

결국 최종 보스를 찾아갔지.

악당 몰골이 이미 얘는 악의근원이야, 심지어 진짜 먼지가 시꺼멓게 껴서 실제로 갱생이 필요해. 엎치락뒤치락 해가면서 한참을 싸우다가, 주인공이 거의 죽을 뻔 하다가 결국 마지막 한방으로 물리치는 이런 뻔한 전개로 그날도 승리를 쟁취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러스를 퇴치한 것처럼 악당 눈에 고무찰흙을 벗기는데.

내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이걸...
이걸 내가 벗기는데, 내가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이때부터 시원의 흐느낌과 섞여 말들은 알아들을 수 없게 흩어진다.

[시원]
이게... 항상 내가 주인공의 가족, 친구들을 납치해 간다는 설정을 넣어놨거든.
...
그러니까, 내가 숨겨놓은 거야. 주인공이 얘네를 못찾게.

시원은 서럽게 운다. 마치 어린 시절부터 지금의 공백을 잃은 듯이 어린아이처럼 울어댄다.

Fade out

4. 방 안/오후

같은 화면 안에 들어온 똑같은 방안, 듬성듬성 몇 가지 물품이 빠져있다. 저 멀리서 구두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조금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물을 트는 소리가 들린다.

[문희]
네, 집이 저층이라 수압이 좋아요.

어렴풋 들리는 사람의 말소리는 물소리에 묻혀 알아듣기 힘들다.
물소리가 멈추고, 바로 이어 다시 구두 소리가 또각. 하고 난다.

Black out

5. 방 안/밤

같은 화면 안에 들어온 똑같은 방안, 눈에 띄게 줄어든 방안의 물건들.
시원이 의자 뒤로 기대어 핸드폰을 보고 있다.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올린다.
들리지 않는 정도의 깊은 날숨을 한 번 내뱉고, 두 손으로 타이핑을 해 검색한다.
다시 잠시간 스크롤을 왔다 갔다 한다.
스크롤 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몇 번 확인하는 듯 하다가,
거울 앞쪽으로 서서히 몸을 당기며, 입을 연다.

[시원]
봐봐, 이거네,

잠시 읽으며 다시 체크를 하며 할 말을 정리한다.
핸드폰을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떼었다 하며, 자세히 본다.

[시원]
여기... 그래 이거네
그래 이때도 비가 왔어....어
여기 보면,
뭐 먹을라고?
내가 물은거고, 너가
부침개? 괜찮지 않음?
내가, 오늘? 하니까
왜 원래 이런 날 딱 아니야?
이런다고, 비가 왔었고, 이 날은
그럼 이날이 우산 가지고 존나 싸운 날이 맞단 말이야...

잠시간, 스크롤을 내리며 내용들을 읽어 내려가는 시원
답답한 듯 내뱉는 숨이 더 깊어진다.
핸드폰을 책상 위로 툭하고 집어 던지고, 수 초간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거울을 바라본다.

[시원]
내가 예민하게 굴었어.
그랬네, 그랬나 보네.
...
근데, 그날은 맞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건 잘못한게 맞는데,
비가 오는 것 까지, 유독 겹치니까.

핸드폰을 다시 집어드는 시원, 스크롤을 내리며 말을 이어나간다.

[시원]
근데 중요한건,
...
쭉 보니까, 반복이야.
너가 우산 가지고 나온 날도 그래,
내가 장난처럼 던진 것도 있지만, 분명히 무슨 날인지 말은 했었고,
근데 거기서 날씨 핑계 대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할 때,
아, 솔직히 말할게, 기분이 좀 그랬어.
내가 더 정확히 말해 줬으면 좋았겠지.
근데, 너도 알았잖아.

거기서 우산 가지고 내가 좀 틱틱 댔더니,
넌 바로 한숨부터 쉬니까.
너도 결국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내가 비 맞고 먼저 가는데,
그거 안 말릴정도면 너도 양보 못하는 선 같은게 있었던거고,
근데, 그 선이 항상 똑같다고.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선 지키면서, 하는..

격앙된 채 말을 이어나가려던 시원이 핸드폰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한참 핸드폰을 잡고 눈으로 무언가를 읽어 내려가는 시원
말없이 한참을 핸드폰을 보고 있다 그 내용을 읽는다.

[시원]
아르헨티나 개미, 학명은 리네피테마속 후밀리스, 이 개미는 다른 개미종들에 비해 체구가 엄청 작대, 하지만 병정개미가 그 어떤 개미들보다 영리하고 용맹한 특성이있어.

시원은 다음 문장을 읽기 전 약간 실소를 자아낸다.

[시원]
또 아르헨티나 개미들은 교미도중에 절대 숙적에게 공격당할 일이 없어, 그 이유는 다른 개미들이 혼인 비행을 통해 교미를 하는 것에 반해 땅 속에서 교미를 하는데, 다른 개미들이 교미를 하다 새 같은 숙적에게 잡아먹힐 확률이 98%나 된다는 걸 미뤄보면 정말 대단한거지.

Black out

[시원]
게다가 아르헨티나 개미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동족간의 연대가 이루어져, 서

로 다른 무리를 공격하는 개미들의 본성과는 거리가 멀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개미라 할지라도, 아르헨티나 개미끼리는 동족으로 받아들이고, 무리에 합류 시킨다고 해.

시원아, 나는 너처럼 감정에 솔직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도 없어.
하지만, 나는 이 개미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거야.

Fade in

6. 방 안/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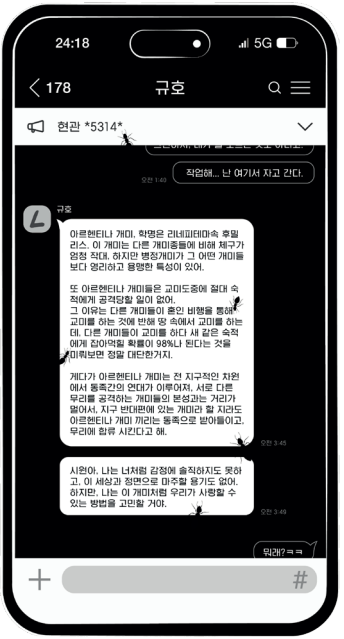
구두 또각 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문희]
여기가 나머지 방입니다.
천천히 둘러 보시고요.

여자가 거울을 지나 방 끝까지 걸어간다.
베란다 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 밖의 소음이 안으로 들어온다.

[여자]
저쪽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나봐요.

여자가 다시 문을 닫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 된다.


24:18
5G
178
규호
현관 *5314*
작업해... 난 여기서 자고 간다.
오전 1:40
규호
아르헨티나 개미. 학명은 리네피테마속 후밀리스. 이 개미는 다른 개미종들에 비해 체구가 엄청 작대. 하지만 병정개미가 그 어떤 개미들보다 영리하고 용맹한 특성이 있어.
또 아르헨티나 개미들은 고미도종에 절대 숙적에게 공격당할 일이 없어.
그 이유는 다른 개미들이 종인 비행을 통해 교미를 하는 것에 반해 땅 속에서 교미를 하는데, 다른 개미들이 교미를 하다 새 같은 숙적에게 잡아먹힐 확률이 98%나 된다는 것을 미뤄보면 정말 대단한거지.
게다가 아르헨티나 개미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동족간의 연대가 이루어져, 서로 다른 무리를 공격하는 개미들이 본성과는 거리가 멀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개미라 할 지라도 아르헨티나 개미 끼리는 동족으로 받아들이고, 무리에 합류 시킨다고 해.
오전 3:45
시완아, 나는 너처럼 감정에 솔직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도 없어. 하지만, 나는 이 개미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거야.
오전 3:49
뭐래?ㅋㅋ

[문희]
아, 그 제가 원래 이쪽까지 나와서
방을 보여드리지는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는데,
뭐가 있긴 했었나 보더라구요.
네.. 근데 이 동네가 치안이 위험하고 그런 건 없어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 밑으로 바로 큰길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거울 쪽까지 걸어 나오다 바닥을 보며 말한다.

[여자]
집에 지금도 입주자가 계신 거에요?

[문희]
네? 아 아까 입주예정이 다음달 초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자]
아, 네 맞아요. 5일 정도요.

[문희]
아, 그럼 문제 없으시고, 이 집이
원래 남자 두명이서 사시던 집인데, 계약기간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짐을 천천히 빼고 계신 것 같더라구요.
여기서 사신지는 조금 오래 됐고,
입주하시는 날 맞춰서는 짐정리 다 하시고 입주 청소도 부르실 거라,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여자]
아, 네네, 걱정은 아니구요.
저도, 짐이 애매하게 남아 있으시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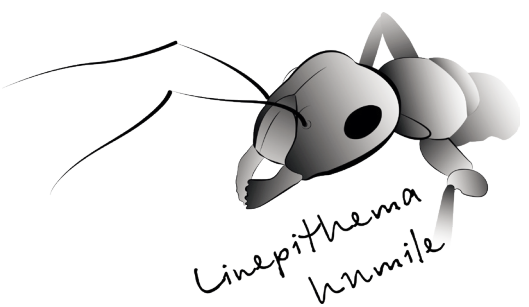
[문희]
네네,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때 전화 벨소리가 울린다.

아, 잠시 전화좀 받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저쪽으로.
네. 잠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업자(문희)가 급히 나가고, 여자는 방을 둘러보다 허리를 숙여 거울에 얼굴을 비춘다. 머리를 가볍게 한 번 정리하고, 방에서 빠져 나간다.

Fin


Linepithema
humile

인터뷰

H 허성완
M 마진석

H 안녕하세요. 감독님.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요.

M 안녕하세요. 저는 마진석입니다. 이 시나리오집에 수록된 '나를 위한 기록'을 집필했습니다.

H 마 감독님과 저는 군대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심지어 이곳 수원에 있는 비행장에서. 그때 저희 둘 다 영화를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도 하고 있네요. 그게.. 10년도 전 일인데 말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영화에 대한 생각도 여러 번 바뀌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어떠세요?

M 그쵸,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 이상이 훌쩍 지났네요. 오히려 그때 생각을 해보면 현재 영화를 하는 저희가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 시점 허 감독님은 정치외교학과를, 저는 디자인과를 재학 중에 군대에 들어와 있었죠. 그리곤 둘 다 막연히 영화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약 6년 정도 지난 시점 허 감독님은 첫 영화를 찍고 저는 영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생계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기회가 닿으면 계속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쓰고 있네요. 1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영화를 한다'라는 명제는 그 한 가지만을 위해 저희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희나 영화를 하는 모두가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겠죠. 결론적으로 '영화를 한다'라는 대전제는 '요즘' 이라는 것 또한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놓아주면 그 길로 달아나 버리는 것이죠. 저는 여전합니다. 영화를 해야죠.

H 저도 그렇지만 영화는 좀.. 애증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영화가 사람 지치게 만드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꾸준히 하고자 하신다면 그럴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인가요?

M 이유가 딱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의 해소가 이 힘든 굴레를 벗어나게 해줄 열쇠라도 되어 줄 텐데 말이죠. 그냥 희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창조한 세계관이 현실에 존재하게 될 때 오는 짜릿한 감정이요.

H 또한, 그 기간 감독님께서는 영화를 배우기 위해 영국 유학을 다녀오셨어요. 영국은 히치콕의 나라잖아요. 영화를 대하는 태도나 교육 방식에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M 제가 영국 영화산업의 중심에서 활동을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식에 대해 평가할 식견은 부족해요. 하지만 제가 필름 스쿨이나 독립영화 산업과 맞닿은 영화씬을 경험해본 것을 토대로 미뤄보자면 확실히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헐리웃 언더독 버전을 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스템은 헐리웃의 내러티브를 따르나, 좀 더 코어한 것에 집중하는 거죠. 상업성과 대중성보다는 조금 더 코어 한 아이디어에 집중해요. 어쩌면 자본력 면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헐리웃을 대적하기 위한 무기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H 그럼 한국에 오셔서 직접 연출하신 작품 혹은 저를 비롯한 주변분들의 연출작에 스탭으로 참여하시면서, 영국에서 배운 것과는 좀 달랐다 하는 점이 있으실까요? (문화적 차이나 경향의 차이 같은 게 좀 궁금해요)

M 위 답변에 언급한 것처럼 코어한 아이디어 단계 이후로 진행되면 철저히 헐리웃 시스템을 따라가요. 스탭 모두가 더 이상 감독의 작품만이 아닌 것처럼 영화를 대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감독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스탭 각자의 롤이 확실하고 열정적이에요. 한국은 뭐랄까, 조금 더 감독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죠. 이건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프리단계에서 유독 한국이랑 많은 차이를 보여요.

H 혹시 영국 시절에 작업한 단편들을 시나리오집을 통해서나 이어질 영화제 등에서 공개해주실 수 있나요?

M 졸업한 지가 이제 꽤 되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최종 영화에 수정하고 싶은 점들도 많은데 그게 불가능한 환경이라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어로 써놓은 시나리오가 누군가에게 보여진다고 생각하면…

H 그렇군요.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볼게요. 감독님께선 영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M **현실을 현실로 느끼게 해주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영화 안에 존재하는 세계관들은 감독이 아무리 참신한 발상을 한다고 한들 현실을 반영이라고 생각해요.** 이후 시나리오, 환경, 배우, 스탭 모든 것이 모여 만들어진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 애써요. 이 과정은 때론 현실보다 더 현실 같고, 나아가 진짜 현실에 존재하는 우리는 스스로를 영화에 투영하죠. 저는 여기서 일어나는 교류가 가장 영화 같은 순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H 저는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M 저는 스핀오프의 개념을 너무 좋아해요. 영화(세계관)를 하나 만들고 그 대상에 대해 못다 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감독의 욕심이 보인달까? 물론 상업적인 이유로 제작되는 스핀오프가 더 많겠지만, 이 또한 대중의 니즈가 스핀오프를 탄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좋은 부분일 수 있죠.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저는 이 스핀오프가 탄생하는 과정이 감독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희열 아닐지 생각하기도 해요. 핵심은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을 누군가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것도 실재하지 않다는 관객과 창작자 간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요. 물론, 이건 비단 영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책을 비롯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미디어가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 시간 동안만큼은 창작자가 펼쳐놓은 세계관을 현실이라 믿는다. 제가 아는 소통 방법 중 가장 환상적이라고 생각해요.

H 감독님께서는 어떤 주제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이야기의 소재는 어디서 얻으시는지가 궁금해요.

M 주제, 장르 이런 질문이 저는 가장 어렵더라고요. 반면에 제가 이야기의 소재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제가 정해지기도, 장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장황하거나 복잡해질 것 같은 이야기 이전에 한마디로 정

의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애매모호함에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이를 반대로 말하면 정의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가령 선과 악의 개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절대 선과 절대 악을 두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요. 마치 차 사고에 과실 비율을 따지듯 정의를 내리죠. 하지만 차 사고가 언제나 그렇듯 이유가 있고, 억울함이 존재하고, 또 객관성이 동반돼요. 여기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설득하거나 진위를 밝혀 결론을 내리면 그것이 주제 의식과 연결될 거예요. 하지만 전 정의만 내릴 뿐 판결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이것이 결론으로 다다르기 힘든지 설명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모여 어떠한 정의를 완성하죠. 불안정한 정의라고 할까요? 저는 더 많은 불안정함을 가진 소재를 좋아해요.

H 감독님께선 한국에서는 디자인을 전공하셨고, 지금도 여러 디자인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디자인에 능숙한 점이 영화를 연출하실 때 어떠한 식으로 도움이 되시나요?

M 물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능력은 시나리오 작업과 비주얼라이징 작업이 동반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예산 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구요. 반대로 문제는 최소화한 비주얼 아웃 컴이 정해져 있다 보니 타협이 조금 힘들어요. 적어도 어떠한 부분에서는 챙겨가고 싶은 아웃 컴이 뚜렷한 편이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해요. 때문에 프리 단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H 저는 <솔직하게 솔직한>의 초록이나 핑크의 활용이 감독님의 디자인적인 기반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작품에서 색들이 어떤 의미로 쓰였던 건가요?

M 이건 사실 의미를 담기 위해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비주얼적인 컬러 셋을 맞추다 보니 의미가 생긴 케이스에요. 한 가지를 정해 두었다면 연하(극의 주인공)는 원래 극에 나오는 정도로 드라이한 인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인 상연이 그렇죠. 하지만 극 중 연하는 평소와 다

른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아주 침울하고 드라이하죠. 그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하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중 초록색 재킷과 hell ya 가 등에 박힌 티셔츠는 연하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정 반대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요소들이 초록색이어야 했나 라는 질문에는 핑크가 전면에 들어간 카세트 플레이어 때문이에요. 애초 흰색 정도의 미니멀한 카세트 플레이어를 생각했었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적당한 카세트플레이어를 구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핑크색 카세트 플레이어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컬러에 맞춰 다른 컬러 코드들도 수정되어야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핑크와 초록의 여러 대치 관계를 만들어 내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H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치밀하게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주로 어떠한 감독들로부터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어떤 감독들, 영화들을 좋아하세요?

M 먼저 제가 좋아하고 존경해 마지않는 감독들을 이야기하자면 너무도 많죠. 또 작품만을 놓고 보자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놓고 제가 좋아하는 감독을 떠올려 보니 대부분 치밀한 스토리와 작업방식을 고수하는 감독들인 것 같아요. 이미 집요한 거로 많이 알려진 크리스토퍼 놀란부터 <데어 윌 비 블러드>로 잘 알려진 폴 토머스 앤더슨, <버드맨>으로 잘 알려진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 감독 등 스타일에서 이미 관객을 압도해 버리는 감독들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 가면 '박찬욱 키즈다'라고 소개할 만큼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열광하며 자랐어요. 재미있는 점은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전 세계영화씬을 흔들기 전부터 영국에서는 유난히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저도 이게 어떤 정서일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이유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H 답변 감사합니다. 주제를 잠깐 바꿔볼게요. 감독님께선 고향은 부산, 오래 살았던 곳은 서울이시잖아요. 제가 알기론 수원에는 군복무 때문에 왔던 이후, 2020년에 다시 오시게 되었고요. 수원에서 지내본 바 이곳은 영화 작업을 하기에 괜찮은 곳인가요?

M 음, 제가 수원이랑 연이 닿은 게 도합 5년이 다 되어가네요. 이건 저한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 우스갯소리로 자기가 나온 부대 방향으로는 볼일도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곳에 와서 일을 하고 있네요. 일단 질문에는 '네, 그런데 아니요'라는 대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비행기 소리가…

H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수원이 변화했으면 하는 점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M 살짝 비껴가 가보려고 했는데 바로 다시 이런 질문이 왔네요. '네, 그런데 아니요'를 약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수원은 문화도시라는 지자체의 목적 때문인지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때문에 예술가로써 어떤 것을 시도해 보기에 좋은 도시죠. 하지만 이 방식이 너무 도시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처음 기획한 의도와 달리 진행에 있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령 최근 들어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기안84를 보면, 사람들은 그의 행보에 관심이 생겨서 그의 이름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의 이름의 기안이 기안동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웬만한 관심이 아니라면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가 하는 행보를 팔로우하고 그다음 기안84가 수원 출신이다. 정도를 알 뿐이죠. 하지만 수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술 지원사업이나 전시 등은 이것이 수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해요. 마치 작품 안에 포함된 PPL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사업이 교훈적이거나 지역 상생을 강조한 것, 또는 수원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등과 같이 예술보다는 공익차원에서 선정되어 지원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아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좋은 예술이 나오는 도시와 예술 활동을 많이 지원하는 도시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꽤 다른 결과를 나을 것으로 생각돼요.

H <나를 위한 기록>은 수원에서 만난 한 배우분을 주인공으로 설정해두고 쓴 1인극 시나리오죠? 어떤 배우분이신지 또 그 분의 어떤 점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M 네. 한시원 배우님이랑 같이 작업했어요. 시원 배우님은 트리핑을 같이 진행하는 김 감독님과의 인연으로 소개받게 되었어요. 평소 차분하시고 젠틀하신 모습과 달리 언뜻언뜻 섬세한 감수성이 느껴지시는 배우예요. 여담이라 이렇게 인터뷰에 실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위한 기록>의 메인 플롯은 시원 배우님의 일화를 듣고 집필하게 되었어요.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시원 배우님의 감정 기복에 관해 이야기 하다가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예상대로 그리고 시원 배우님의 장점이 잘 담겨 만족스러운 아웃 컴이 나왔어요.

H 다음으로, 저희 트리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희가 함께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M 저는 트리핑의 로고와 이름이 저희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뻔하지만, 관객들을 어디론가 데려가 주는 거죠. 저희가 제안하는 trip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은 저희에게 달렸죠. OTT 서비스가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은 뒤로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콘텐츠에 도달하죠. 심지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모바일을 통해 쉬운 여행(trip)이 가능해요. 저는 트리핑이 하나의 콘서트 내지는 전시처럼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객이 트리핑이 주최하는 상영회에 참석 하고 돌아갈 때 강한 여운이 남을 만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트리핑을 소개할 때 "그날은 조금 기분이 이상한 날이었어" 같은 감상평을 남길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봐요.**

H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M 음, 삶을 살아야죠, 결혼도 하고, 이사도 해야 해요. 욕심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니 더 열심히 살아 봐야죠. 현재는 아트디렉터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있어요. 생계를 해결해야 또 다음이 있으니까요. 말하다 보면 항상 삶과 영화는 정반대에 있는 개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목표는 영화를 제 삶 안에 들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H 긴 시간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선작

충분한 시간 I 2018, 12분 49초.

<충분한 시간>은 우리가 거대한 사회적 재난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영화가 아닌 미디어아트로 허성완 감독의 <쉬운 일 아니에요>에 대한 마진석 감독의 응답과도 같은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협업한 첫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허성완

소요필름 대표
영화감독, 작가

주요작

〈위르트에서〉, 2014
〈쉬운 일 아니에요〉, 2016
〈우리, 난민들〉, 2020
〈내 사랑의 생태계〉, 2022
〈거기서 만나〉, 2023

전시

〈내 사랑의 생태계〉, 개인전, 2022
〈오, 나의 부이〉, 개인전, 2023
〈POINT OF VIEW〉, 그룹전, 2023

heosungwan.com
instagram.com/soyofilm

그래서 그림

OPSQ

어느 동네의 작은 공원. **기주(20대, 여)**가 신이 나서 여름비를 맞고 있다. **기석(20대, 남)**은 우산을 쓰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좀 걱정스런 표정이다.

기석(V.O)
비 맞기를 기꺼이 즐기는 사람은 그늘이 없다.
그녀가 그것을 가르쳐주었다.

기주가 기석을 보면서 말한다. (CU)

기주
알았지? 우린 작지만 단단한 공동체야.

기석 얼떨결에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인다.

기석(V.O)
친구도 연인도 아닌 공동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게다가 그건 작고 단단하다고 했다.

기석이 기주를 보고 있고, 기주는 비를 맞고 있다. (FS)

Title In. 그래서 그믐

2. 실내/교수연구실/낮

자막: 2020년

기석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모니터에는 어느 길거리의 사진(사람과 차들이 뒤엉켜 있다)이 띄워져 있고, 기석은 데이터라벨링 작업을 하고 있다.

기석
작지만… 단단하다.
단단하지만. 작다…

때마침 기석 옆에 있는 서류 뭉치를 뒤지러 왔던 선배가-

선배
뭐가?

기석
역시 담판을 지어야겠어요.

선배
응? 뭘? (뭔가 생각난 듯) **야. 하지말라니까.**
괜히 형들이 마 교수랑 엮이면 마가 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너 봐봐. 저번에 한 번 대들었다가 지금 뭐하고 있어.

기석
(말을 끊으며) **아니요. 그거 말고.**

선배
응? 그럼?

기석
(한숨) **공동체요.**

선배
응?

Insert. 기석의 모니터 화면. 사람을 박스로 쳐서 "person"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뒤에서 선배가 궁시렁거리는 게 들린다.

선배(V.O)
뭐라는 거야... 실없는 녀석.

3. 실외/길/낮

먼저 온 기석이 기주를 기다리고 있다. 멀리 기주가 보인다. 기주가 손을 흔든다. 기석도 손을 들어 인사를 한다. 기석 가까이 온 기주. 다짜고짜 뭔가 내민다.

기주
(뭔가 내밀며) **자.**

기석
(받으며) **이게 뭔데?**

기석이 보니까 그가 줬던 편지다. 그런데 젖었다가 그대로 말라 붙어버린 상태.

기주
(좀 민망해 한다) **아. 그게. 저번에 주머니에 들어 있었나 봐.**

Insert. 비를 맞고 있는 기주의 주머니. (OPSQ와 연결)

기석
어? (펼쳐보려 하지만 안 되자) **아.**

기주
안 가?

어느새 기주는 저만치 가 있다. 기석이 단념하고 젖은 편지를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품 안에 넣는다. 그리고 기주 뒤를 쫓아간다.

4. 실내/버스 안/낮

두 사람 버스에 탄다. 자리에 앉는다. 버스가 간다.

기석
내 차 타고 가도 되는데.

기주
운전하면 피곤하잖아. 그리고 난 버스가 더 좋아.

기석
왜?

기주
음... 너무 이기적이진 않은 거 같아서?

버스가 출발한다. 잠시 뒤, 컷 전환하면 기주 잠들어 있고, 기석은 그런 기주를 본다. 그러다 고개를 돌리고 뒤로 머리를 기댄다.

기석(V.O)
버스가 더 좋다...

기석이 생각에 잠긴다.

5. 실외/버스 정거장/밤 (꿈)

신도들이 기석을 둘러싸고 기도를 하고 있다. 기석도 기도 중인데, 신도들 소리가 거슬리자 더 크게 기도한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도사와 교주가 지켜보고 있다.

전도사
저…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교주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우리 교단의 핵심은 자율과 선택이에요.

Insert. *전도의 방식까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적힌 교단의 홍보전단.

교주
저건 저 청년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전도사
그야 그렇지만… 저러다 진짜 무슨 사단이라도 났다가는
교회도 이제 겨우 도랑친 수준인데…

교주
어허! 전도사님. 믿음이라도 잃으신 겁니까?
신께서 정말 저 청년이 죽게 놔두기라도 하실까요?

전도사
아! 아닙니다. 그건 절대…

교주
(전도사의 말을 끊으며) **그럼 잠자코 계세요.**

전도사가 입을 다문다. 하지만 여전히 수심 가득한 얼굴. 멀리서 버스가 다가온다. 전도사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신도들도 버스가 들어오는 걸 보고는 더

절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한다. 기석은 실눈을 떠서 버스 쪽을 한 번 보고는 다시 눈을 감고 기도에 열중한다. 버스가 가까이 오자 그가 그 앞으로 뛰어든다.

기석(V.O)
... 저를 살려주신다면 당신에 대한 믿음을 평생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이 버스 안의 모든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버스기사가 경적을 울리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기석
그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그 순간 신도들은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 저마다의 반응을 보인다. 전도사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교주는 표정이 굳는다.

6. 실외/버스 정거장/밤 (꿈)

버스가 멈춰 서 있다. 버스 앞에는 아무도 없다. 버스 안의 사람들이 창밖을 내다본다. 기사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 안전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가본다. 기석이 버스 앞에 누워 있다. 이 어설픈 소동의 끝은 우스꽝스럽다. 어차피 버스 정거장으로 들어오는 버스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긴장이 풀린 기사가 화를 낸다.

버스 기사
이런 씨.. 당신 미쳤어? 왜 갑자기 버스 앞에 뛰어들고 난리야!
빨리 안 일어나요? (머리를 쓸어올리며) **어후...**

그 모습을 본 신도들은 서로 좀 흩어져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척을 한다. 기석이 겸연쩍어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

기석
죄송합니다..

기석이 주뼛거리며 버스에 타려고 한다. 버스 기사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차 한다. 그런데 그때 버스에서 기주가 천천히 걸어나오고 기석과 딱 마주친다. 기석이 좀 놀라 뒤로 물러선다. 기주가 기석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묻는다.

기주
괜찮은 거죠? 안 죽었죠..?

버스 기사
저기, 아가씨. 위험하니까 차 안에…

그때, 기주가 갑자기 기석의 뺨을 때린다. 정확히는 그러려는 순간 컷.

7. 실내/버스 안/낮

폴라로이드를 찍는 소리가 난다. (따귀를 때리는 소리 대신) 기석이 고개를 돌려보니 기주가 어느새 일어나 사진을 찍었다.

기주
좋아. 이걸로 1줄 완성.

기석
(장난하는 투로) **아. 인간적으로 올리진 말자.**

기주
(장난하는 투로) **싫은데에. 바로 벽스타행입니다-**

CUT TO. 기주의 방
방의 한쪽 벽에는 그녀가 찍어온 폴라로이드 사진이 쭉 붙어 있다. 마치 인스타처럼 1줄에 3장. 사진 밑에는 수기로 쓴 해시태그. 모두 그녀가 꾸민 것이다.

기석
그 정도면 인스타 만드는 게 낫지 않아.

기주
싫어, 그건. 어, 다 왔다.

기주가 하차벨을 누른다.

8. 실외/길/낮

시골길처럼 보이는 길을 나란히 걷는 두 사람.

기주
아까도 꿈꿨어?

기석
응.

기주
무슨 꿈?

기석
음. 생각나는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면..
어떤 남자가 좀 이상한 종교를 믿나봐.
그 교단은 전도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기석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시간이 흐르고-

기석
따귀를 때린 여자는 버스에 타야만 잠을 잘 수 있는데
그 사고로 인해 갑자기 잠이 깬 거였거든?

기주
응.

기석
그런데… 여자가 왜 버스에 타야만 잠이 오는지 잘 모르겠어.

기주
음… (생각하다가) 그럼.. 이런 건 어때?

9. 실내/집(침실-거실-부엌)/밤 (기주의 이야기)

침실에 누워 있는 기주와 그 옆의 연인. 연인은 곤히 잠들어 있고 기주는 눈을 그대로 뜨고 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잠든 연인을 바라본다. 마치 그의 잠을 훔치고 싶은 듯 빤히. 그러다 그녀는 몸 위에 올려진 연인의 다리를 슬그머니 밀어다 놓고 침대를 빠져나온다. 그리고 연인에게 이불을 잘 덮어준다.

기주(V.O.)
그건 그녀가 수 년째 반복하고 있는 일상이었다.
잠이 많다 못해 넘쳤던 남자는 머리를 뉘면 쏟아지듯 잠이 들었고,
그녀는 자주 그런 그의 잠을 훔치고 싶었다.

기주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는다.

기주(V.O.)
하지만 그의 잠을 들여다볼수록 그녀는
미로 속을 헤매는 기분이 들었고,
결국 그녀의 욕망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훔칠 수는 없다는 절망감으로 끝나곤 했다.
그럴 때면 혼자 거실에 나와 책을 읽거나
하염없이 밤하늘을 바라보기도 했다.

기주가 책 한 권을 읽기 시작한다. 책의 제목은 <소실점/복사열>이다. 그로부터 두 시간 정도 시간이 흐르고, 기주는 부엌에서 수면제 한 알을 꺼내 먹는다.

10. 실내/집(침실)/밤 (기주의 이야기)

기주가 다시 침대에 눕는다. 그녀는 잠든 연인의 볼에 입을 맞춘 뒤 잠에 든다. 시간이 좀 흐른다. 갑자기 신음 소리가 들린다. 기주의 연인이 심장을 부여잡고 괴로워 한다. 그는 기주를 흔들어 깨우려 하지만 실패하고 이내 침대 옆으로 떨어진다. 기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남자가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려오다, 끊어진다.

11. 실외/유기견 보호소/낮

기주의 슬픈 얼굴. 유기견들을 바라보고 있다. 한숨을 푹 내쉰다.

기주
그래서 버스에서 잠드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 타고 내릴 때마다 깨어서 쳐다보는 거지.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걸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려고.

기석
음. 너무 슬프다. 그런데 좀 억지스러운 거 같기도 해.
물론 그런 식으로 트라우마를 해결해보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야기로서 납득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기주
그런가? 좀 그런 거 같기도 하네?
아님. 앞에다 '실화'라고 쓰는거야.
진짜라고 하면 받아들지 않을까?

기석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기석이 말하려는데 뒤에서 때마침 소장이 부르면서 말이 끊어진다.

유기견 보호소장
두 분 이쪽으로 오세요.

기주, 기석
(거의 동시에) **네.**

두 사람 그쪽으로 간다.

12. 실외/유기견 보호소/낮 (SQ)

기주와 기석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를 한다.

13. 실외/유기견 보호소/낮

기석이 직원과 함께 케이지 안을 치우고 있다. 기석이 좀 서툴자 직원이 이것저것 알려준다.

보호소 직원
여자 분 쫓아오신 거죠?

기석
(민망해하며) **아, 네.**

보호소 직원
다들 그래요. 보통 여자분들이 가고 싶어하시면

남자분들이 따라오고. 좋아하니까.
많이 좋아하시나보다.

기석
뭐, 그렇죠. 그런데 강아지들이 정말.. 많아요.

보호소 직원
욕심에 데려왔다가 버리는 거죠.
갖고 싶잖아요. 보고 있으면.

14. 실외/유기견 보호소/낮

기석이 쓰레기를 밖에 내다놓고 안으로 들어간다. 기주가 물끄러미 강아지 한 마리를 보고 있다.

기석
뭐해.

기주와 눈을 마주치고 꼬리를 치고 있는 강아지. 해가 조금씩 저문다.

15. 실외/유기견보호소/밤

봉사활동을 끝낸 기석과 기주는 소장, 직원과 인사를 하고 나온다. 걷는 두 사람.

기주
배고프지? 저녁은 내가 삽니다.

기석
오- 진짜?

기주
이 근처에 맛집 소개 받았거든. 소장님 픽.

기석
오- 로컬 추천이면 찐인데.

기주
맞지.

두 사람 걸어간다.

16. 실내/바/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먹는다.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 나누고 있고 음악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기석과 기주 둘만 있는 것처럼 공간이 조용해진다.

기석(V.O)
식당인 줄 알았는데 바였다.
우리는 마주 앉지 않고 나란히 앉아서 안주를 시켜먹었다.
술 대신 물과 콜라만 마시고 있는 건 우리 둘뿐이었다.
기주는 아까 눈을 마주쳤던 강아지가 자꾸만 눈에 밟힌다고 했다.
신중한 사람이니까.. 진짜로 입양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다.
만약 입양한다면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겠지만.

기주가 기석을 돌아보며 말한다.

기주
아까 그 이야기 잘 완성해봐.
나는 너가 해주는 이야기들 진짜 재미있거든.
언젠가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려줄 수 있음 좋겠어.

기석
노력하겠습니다!

기주가 웃는다.

17. 실외/바 앞/밤

바를 나온 두 사람. 어느샌가 비가 내리고 있다. 우산이 없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본다. 기주가 먼저 빗속으로 걸어들어가고 기석도 이내 뒤따른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이 비를 맞으며 걸어간다.

기석(V.O)
친구도 연인도 아닌 공동체…
오늘 담판을 지을 생각이었는데.
(한참 뒤 덧붙이듯)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우선은.

ENDING

기석의 차안. 조수석에 앉은 기주가 강아지를 안고 있다. 알러지로 눈에는 눈물이 좀 고여 있다. 차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녀의 품에 안긴 강아지는 잠들어 있다. 기주가 손을 들어 눈물을 훔친다. 운전석의 기석이 그녀를 힐끔 본다.

기석
알러지?

기주
응.

기석
뒤에다 놓지.

Insert. 뒷좌석에 놓인 강아지 유모차.

차 앞유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기주.

기주
아냐. 좋아.

눈물이 고인 그녀의 눈에 보이는 가로등, 신호등의 불빛들은 번져있다.

기주
예뻐.

끝.

인터뷰

K 김승혁
M 마진석
H 허성완

K 안녕하세요. 감독님. 먼저 소개 부탁드려요.

H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도 만들고 최근에는 미술 작업도 많이 하고 있는 허성완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영화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표현방법들을 익히고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물

K 감독님하고 처음 뵌 게 20년이잖아요. 차사고 때문이었죠.

H (웃음) 그랬죠. 그리고 얼마 뒤에 제가 <우리, 난민들> 때문에 예산을 따내려고 할 때 감독님께 연락을 드리면서 그 후의 모든 것들이 시작됐죠. 그때 감독님이 제 영화에 처음으로 조감독을 해주셨어요.

K 맞아요. 그래서 사실 가까워지기보다는 좀 불편하게 될 사이가 더 맞지 않았나 싶어요. 저에게 기꺼이 함께 작업하자고 했던 이유가 좀 듣고 싶어요.

H 우선은 차범퍼가 좀 망가진 게 저한테는 별 큰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수원에 영화를 하는 또 다른 팀이 있다는 게 반가웠어요. 영화라는 게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한 데 이왕이면 서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편이 좋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전까지 김 감독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도전이었지만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K <우리, 난민들>을 작업할 때는 저도 감독님의 스타일이나 세계관을 잘 모른 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영화에 대해 물어봤을 때, 이번 작품은 사람들이 다 보고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확실히 몰라도 괜찮다는 것을 취지로 글을 썼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그때 설명해주셨던 의도를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제가 감독님의 작품들을 이해하는 상황이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것 같아요.

H <우리, 난민들>은 저 개인에게는 중요한 작품이지만 그만큼 개인적인 이

야기이기도 해요. 그 영화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만든 영화는 2017년에 마을 영화제를 위해 기획한 <러버스 온 스테어스>였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영화를 하지 못했었죠. 경제적인 이유가 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에 영화를 완전히 놓았던 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썼고 또 그걸 찍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다 잘 안 되었고, 그러다보니 의지도 역량도 약해져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20년에 상캠에 입주하면서 절치부심했고, 그렇게 찍은 게 <우리, 난민들>이에요. 지난 2년 간 영화로부터 멀어져 있던 저를 일종의 '난민'으로 여기면서 그 시절을 정리하고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죠. 그래서 완전히 이해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그 2년 간 느낀 게 저만 느낀 건 아닐 테니까요.

K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그 2년 간의 공백기에 무엇을 하면서 지내셨나요?

H 그때 친구들과 유튜브 채널을 했었어요. 마 감독님도 함께 했었는데, 태국팝을 한국어로 번안해서 커버하는 콘텐츠를 했었죠. 나름 잘 됐었어요. 구독자가 8만까지 갔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다 밝힐 수 없는 이유들로 팀이 와해됐어요. 저는 저대로 불만을 갖고 있었고, 채널을 운영했던 분도 그럴 텐데 우린 그걸 터놓고 얘기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

K 그렇군요. 그럼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같이 작업하면서 좀 부러운 부분이 점차 영화의 색이나 스타일이 확고해지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감독님과 영화 얘기를 하다보면 정말 많은 영화를 보고, 다양한 영화를 보는데도 좋아하는 영화들은 유명한 영화보다는 스타일이 확고한 감독이나 작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향을 받은 작품이나 감독이 있으신가요?

H 음. 맞아요. 저는 좀 자기 세계나 스타일이 확고한 연출감독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러려고 하고요.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영화 만든다고 하면 좋아하는 영화나 감독을 많이 묻잖아요? 저도 가끔 누군가에게 묻기도 하는 질문인데, 참 답하기 어렵기도 해요. 매번 바뀌기도 하고 또 좋은 작품이나 감독들이 많으니까요. 저에게 예술가로서 최고의 롤모델은 백남준이에요. 그리고 감독들 중에서는 매번 바뀌는 저만의 리

스트 안에서도 항상 존재하는 감독들은 구로사와 아키라, 홍상수, 타르코프스키, 고다르 정도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고나니 제 안에서 수많은 감독들이 아우성치는 기분이 들어요. 나는? 나는? 하고요.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K 허성완 감독님의 스타일을 봤을 때, 좀 다르게 느껴졌던 작품이 <세이프티 인 넘버스> 라고 생각해요.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나 실험적인 부분은 감독님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참이 지나고 나서 PD님이 그냥 편하게 나눈 대화가 시나리오가 되어 나온 것에 깜짝 놀랐다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세계관을 만들고 설정을 만든 작품들과 달리 <세이프티 인 넘버스>를 구성할 때 고민했던 것이 있을까요?

H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작업을 해나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업인데요. <내 사랑의 생태계>나 최근작 <거기서 만나> 그리고 앞으로 찍을 단편 중 하나가 그런 쪽이고요. 다른 하나는 에세이적인 영화들인데요. 제가 어떤 시기에 가진 생각이나 삶에 대한 인식 등을 자연스러우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약간의 실험성을 가미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쪽이에요.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사람 같아요. 전자의 작업을 하다보면 강박적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후자의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놓아주는 거죠. 마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요. 그래서 <세이프티 인 넘버스> 같은 작업은 고민보다는 관찰을 더 중시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부분에서는 감독님의 작업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K 저는 감독님이 작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배우의 스타일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캐스팅을 한다고 생각해요.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머릿속에 그리는 캐릭터가 명확히 있더라도 거기에 맞는 캐스팅을 하기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감독님이 작업한 영화 속의 캐스팅 비화나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H 음... 어느 정도는 캐릭터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임하지만 동시에 백

지 상태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같아요. 오디션 때는요. 그리고 저는 직관을 믿는 편입니다. 대신 그 직관이라는 걸 평소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갈고 닦아두어야 한다, 생각하는 편이고요. 비화라고 할 것은 아직 없는 거 같아요. <우리, 난민들> 때 이수정 배우를 프로필 사진만 보고 그 즉시 연락했었다는 거 정도일까요? 보는 순간 아, '은원'(여주인공의 이름)이다, 생각했거든요.

K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감독님의 작품에서 배우가 해야 하는 것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보다는 이야기 안에서의 역할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극화된 큰 감정의 변화가 없이 대사나 상황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배우 입장에서는 감정을 절제하다가 폭발시키고 자신의 연기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절제 시키시는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 작품 속에서 배우가 어떤 역할을 하길 원하시는지 얘기해주세요.

H 배우는 저에게 영원한 의문점이고 가장 가까운 동료이기도 해요. 배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하는 연기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도 아직 모르겠고요. 끊임없이 탐구해야 할 거라 생각해요. 감정... 은 저는 좀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되길 원하는 거 같아요. 영화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그것이 배우의 연기와 잘 어우러져서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배우의 역할을 생각해본다면 제가 상상만 했던 존재를 살아숨쉬는 생물로 만들어주는 분들이랄까요. 저는 제가 쓴 대사가 배우를 통해 발화되는 순간, 그리고 제가 상상한 상황이 배우들을 통해 체화되는 순간을 볼 때 희열감을 느껴요. 거기에는 항상 배우분들의 해석과 개성이 개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거 참 즐거운 일이에요.

K 약간 뜬금없지만 꽤 오랜 시간 함께 작업했는데, 영화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영화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H 저는 좀 자연스러웠던 거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영화에 항상 노출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영화를 좋아하시기도 했고 주말마다 방영해주는 영화를 놓치지 않고 챙겨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영화는 남의 것이었어요. 제가 보는 영화들에는 언제나 나와는 다르게 생긴 서양인들이 등장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저건 저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처음 바뀐 건 <살인의 추억>을 보고나서 였어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뭔가 달랐던 그 영화에서 저랑 닮은 동양인들이 나오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제가 봤던 서양영화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 아 영화가 남의 것만은 아닐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렇게해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됐죠.

K 감독님은 정치외교학과를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를 만드는 데 영향이 좀 있을까요?

H (웃음) 그럴수도 있어요. 정확히는 사회과학을 배운 점이 영향이 있을 거 같아요. 사회과학이 주제를 탐구하는 방법을 몸에 익히게 됐거든요. 지금도 영화를 만들기 전, 그러니까 주제를 연구하는 과정은 저에겐 사회과학적이에요.

K 그럼 이제 소요필름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소요필름의 모토인 '짧지만 충분한 영화'가 너무 좋아서 훔쳐쓰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H 소요필름이 출발할 때 내세운 슬로건이었어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단편이 비록 짧지만, 어떠한 정서적 반응과 상식의 혼란을 충분히 야기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던 거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보다 영화는 짧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영화는 짧은 영화다. 그러니까 우린 단편, 장편 가리지 않고 짧지만 충분한 영화로 만들겠다.

M 소요필름 이야기니까 저도 김 감독님에 이어서 질문을 해볼게요.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영화' 에 관심이 많으신것 같아요.

H 맞아요. 소요필름의 슬로건이 이제는 '지속가능한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김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짧지만 충분한 영화'와 함께 '함께 만드는 영화', '지구를 지키는 영화'까지 담아내려고 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속가능한 사랑은 **어떻게 영화를 지속가능하게 사랑할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어요. 비단 영화 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절대 마음만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마음은 나약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첫째 단편을 꾸준히 찍어나가면서 단편만으로 제 작품세계를 구축하자였어요. 그 세계를 통해 인정받는다면, 그를 통해 자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작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장편을 만든다면 어느 정도는 제작사와의 타협이 불가피할 거에요. 그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 단편 만큼은 제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두려는 거죠. 영화를 계속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선 단편을 꾸준히 만든다는 행위 자체도 제 캐릭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함께 만드는 영화'는 특히 <내 사랑의 생태계>로부터 얻은 교훈이기도 한데요. (웃음) 좋은 영화는 좋은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들과 잘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려고 해요. 트리핑도 그런 고민의 일환이고 이 책도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구를 지키는 영화'는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구가 멀쩡해야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계속 찍을 수 있을거란 생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그 세 가지 모두가 하나의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해답이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영화를 지속가능하게 사랑할 수 있나?**이고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K 환경문제나 다양성 문제 같은 사회 문제를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강요하지 않고 이야기로 보여주는 면에서 참 영리하게 풀어나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다루면서 보는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것은 목소리를 내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받

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장점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해요. 감독님은 영화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이나 생각이 있으세요?

H 영화의 역할은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부터가 답을 갖고 있지 않고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누가 했는지는 까먹었어요. "끊임없는 반사작용의 무수한 교차"인데요. 저의 정치성향부터 삶에 대한 태도가 그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노력해요. 저는 무언가를 너무 단단하게 믿는 걸 경계해요. 그 대신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영화들도 제가 가진 생각을 단단하기보다는 말랑말랑하게? 스며들듯이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M 감독님의 작품은 전반에 세태의 비합리를 이야기하거나 세상에 대한 암묵적 투쟁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극중 캐릭터에 반영할 때 꼭 한쪽은 수동적인 인물로 그 반대로는 행동하는 인물을 대치시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인물 관계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걸까요?

H 제가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보진 않았었는데 그런 거 같네요. 최근에 저희가 함께 작업했던 <거기서 만나>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러한 대비 속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잘 표현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만, 한쪽이 수동적이라기보단 망설인다고 할까요? 그런 쪽에 더 가까울 거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영화는 암묵적 투쟁이기도 한 거 같아요.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아, 라는 말을 직접은 못하고 영화를 통해서 하는 거죠.

M 크고 작게 벌써 6편의 작품을 만드셨어요. 작품을 만들면서 가장 강렬한 경험으로 기억되는 영화가 있다면 어떤 영화 일까요? 그리고 어떤 점이 그렇게 기억되게 만들었을까요?

H 감독님께 기억은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잖아요? <나를 위한 기록>도 그렇고 <솔직하게 솔직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주신 거 같아요.

가장 강렬한 경험으로 기억된다면 역시 첫 영화가 아닐까요? 그야말로 모든 게 최초였으니까요. 그러게요. 어느새 그래도 꽤 했네요.

K 감독님의 작품들이 점점 퀄리티도 높아지고 영화계에서의 인정?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느낀 적이 있으신지와 영화를 해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영화를 해서 참 좋다고 느낀 일이 있을까요?

H 저로서는 기분 좋은 질문인데요. (웃음) 그런데 아직 그렇다고 크게 느낀 건 없는 거 같아요. 다만,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쓸 때 그래도 전보다는 좀 잘 써지는 거 같다거나 그래도 전보다는 제작지원을 잘 받는다거나, 제작품을 보여드릴 기회가 조금씩 더 생겨나는 것 같다거나 하는 것들은 있어요. 저는 산울림 좋아해요. 형제들끼리 집에서 시작해서 역사적인 앨범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형제가 함께 했고요. 그렇게 꾸준히 좋아서 했던 그때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다 정말 운좋게 좋은 영화를 세상에 남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거 같고요. 영화는 항상 힘들고요. 항상 참 좋아요.

K 트리핑은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명확한 비전이나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트리핑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감독님은 트리핑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H 저는 감독님께서 트리핑을 통해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공감해요. 제가 이 책을 기획한 것도 트리핑에 대한 애정으로 그리고 두 분에 대한 애정으로 받아주셨으면 해요.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다 함께 잘,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어요. 트리핑이 그 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저희 영화 보고 떠드는 그거도 얼른 시작하셔야죠.

K (웃음) 해야죠. 너무 작품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좀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감독님의 작품에 아버지의 역할이 참 크신 것 같아요. <위르트에서>는 아버지의 일터를 배경으로 찍도록 도와주시고 지원도 해주신 것

으로 알고 있고, 영화들의 영어 자막도 직접 번역해주시고 계신데요. 가족 분들이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들었던 이야기가 있나요?

H 부모님의 역할과 기대가 크고요. 무엇보다 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굉장히 여리고 섬세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잘 도와주세요. 사실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신 거 같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부모님께서 그러실 것 같기도 한데. 다행히 제 꿈으로 인해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진 않았어요. 속으로는 내키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막 반대하고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가족들의 코멘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쉬운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가장 많았던 거 같아요. 저는 일부러 어려운 영화를 만들려고 하거나 하진 않아요. 다만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 욕망은 있고, 그걸 제가 능숙하게 하지 못해서 어렵게 느끼시는 거겠죠? 저는 이건 마 감독님하고도 생각이 좀 일치하는 부분일 텐데, 보는 동안에는 어찌됐든 관객이 빠져서 끝까지 볼 수 있게 만들고 영화가 끝난 뒤에 여러 생각들이 시작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목표긴 하죠. 아,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쉽다고 하셨어요.

K 좀 뜬금 없는 질문이지만, 가족이나 주변사람, 함께 작업하면서 지나쳤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생각해보니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쳤거나 이 자리를 통해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H 너무 많죠. 당장은 <거기서 만나>에서 엑스트라 역을 해주셨던 모든 분들이 생각나요. 한 분 한 분 충분히 챙겨드리지 못했던 거 같아서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 크고 작은 도움들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고마움을 전하는 데 서툰 편인 거 같아요. 좀 더 노력해야겠어요.

M 마지막으로 감독님 다음 작품이 궁금한데요. <내 사랑 생태계>의 속편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세계관을 공유하는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H <내 사랑의 생태계>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재개해보려고 해요. 그 세계관을 활용하는 영화 외의 작업들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에만 한정한다면 단편 두 편을 제작할

예정인데 하나는 관계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영화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어요. 제목은 각각 <세게 던져진 세계> 그리고 <정상에서 일어서기>고요. 장편 프로젝트로는 <조각모음>과 <투명으로 가는 두 명>을 준비중이에요. 둘다 단편영화와 장편영화의 간극에 대한 제 생각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테고요.

K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H 제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아서 더 할 거는 없을 거 같아요. 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다시금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K 감사합니다.

M 수고하셨습니다!

자선작

위르트에서 I 2014, 17분 38초.

<위르트에서>는 저의 첫 단편 작품입니다. (1) 사랑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후 저의 다른 작품들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2) 제가 영향을 받은 작가, 음악가, 감독들의 영향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이후 제가 극복해나가야 할 한계를 보여준다는 이유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ENDING CREDIT

안녕하세요.

책을 끝맺기 위해 다시 한번 허성완입니다. 영화에는 엔딩 이후에 제작에 참여한 분들의 성함을 나열하는 긴 목록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관객분들은 그 목록을 끝까지 보지 않고 영화관을 나가시지만요. (사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을 끝맺는 말 역시 보통은 읽지 않고 건너뛰지 않으실까 짐작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까요.)

그래도 읽어주실 분들을 위해 이 책을 기획한 의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 허성완과 김승혁, 마진석 세 명의 감독은 모두 수원에 기반을 두고 영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수원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은 시나리오를 한 편씩 써보고 그걸 엮어 책 한 권을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승혁 감독님의 〈TWO SWORDS〉은 실제로 작업실 근처에 있는 한 카페에서 듣게 된 실화를 극화한 것입니다. 마진석 감독님의 〈나를 위한 기록〉은 수원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한시원 배우님을 염두하고 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의 〈그래서 그믐〉은 제가 수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경험하게 된 순간들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혹은 아는 사람만 알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획의도를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단지 읽으시는 동안 충분히 재미있으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시나리오들을 더 다듬어 영화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편의 옴니버스로 완성하고 영화관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것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은 뜻대로 안 되는 법이라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 뜻대로 되지 않는 만큼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즐겁고 대단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 됐든 저희들은 지금처럼 함께 영화를 만들면서 고통받고 또 행복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신 모든 분들도 각자의 사랑과 함께 그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판 1쇄 2023년 11월 30일

기　　획 | 허성완
지 은 이 | 김승혁, 마진석, 허성완
펴 낸 이 | 허성완
책임편집 | 조현아
디 자 인 | 조현아 허성완
일러스트 | 마진석

펴 낸 곳 | 프로보크 프레스
출판등록 | 2018년 8월 7일(제2018-000034호)
전화번호 | 070. 4403. 1005.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서둔로166
메　　일 | provokepressbysoyo@gmail.com
인　　쇄 | (주) 에이프린트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사전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수원문화재단의 로컬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후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